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HELLO FROM RENN LAKE

가제 : 렌 호수에서 보내는 인사

저자 : Michele Weber Hurwitz

출판사: Wendy Lamb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2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문학



- \*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 어린 그리고 무해한 이야기.”- 「커커스 리뷰」
- \* “입양, 성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가족 및 수생 생태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즐거운 이야기.”-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아주 조그만 아기였을 때 애널리즈 올리버는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에서 버려진 채 발견 되었다. 다행히도 애널리즈는 곧 마음씨 좋은 양부모들을 만나게 되었고 '렌 호수'라는 아름다운 호수와 신비롭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랐다. 하지만 그 렌 호수가 점점 병이들어가는 바람에 애널리즈는 더 이상 그 호수에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되었다. 애널리즈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그 호수를 직접 구하기로 결심한다. 지역 사회, 사회적 운동,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해 싸우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달도 뜨지 않은 어느 날 밤, 호수 '렌'은 마을에 어떤 여자가 팔에 천으로 감싼 물체를 들고 나타난 것을 보았다. 렌은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는 천 덮개에서 작은 손 같은 것이 삐죽 튀어나온 것을 어렵듯이 보았지만 그 물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여자는 한 가게 쪽으로 다가갔고 몇 분 후 그녀가 돌아 나왔을 때 렌은 그녀의 팔에 있던 그 물체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렌은 여태껏 이 마을에서 일어난 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지켜봐 왔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이 일을 지켜볼 수 많은 없었다. 천에 싸여 있던 그 물체는 바로 아주 작은 어린 아기였기 때문이다. 렌은 있는 힘껏 온 기운을 모아 그 가게의 창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가게 안에서 빗질 중이던 알덴 부인을 놀래 키는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12년 후, 애널리즈는 자신이 입양 된 후 기적적으로 양부모님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태어난 동생 제스와 여름 방학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널리즈의 부모님은 렌 호수에서 작은 리조트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덕분에 애널리즈는 늘 호숫가에서 놀며 자랐다. 동생 제스 역시 애널리즈와 함께 언제나 호숫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유독 애널리즈만이 호수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 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애널리즈는 그 호수가 종종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여름 방학이 되긴 했지만 애널리즈는 마냥 설 수 만은 없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바빠진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학 첫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일터에 나갈 준비를 마친 애널리즈와는 달리 제스는 늦장을 부리고 있었다. 애널리즈는 제스의 하얀 피부와 큰 키, 깃털처럼 고와 보이는 머릿결을 볼 때 마다 흠칫 놀라곤 했다. 어두운 색 곱슬머리에 키가 작은 자신과 달리 제스는 너무나도 엄마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애널리즈는 제스와 리조트로 향하던 중 알덴 부인의 상점을 훑듯 보았고 제스는 애널리즈에게 ‘발견 된 날’을 축하한다며 웃었다. 이 날은 여름 방학 첫날인 동시에 12년 전 애널리즈가 알덴 부인의 상점 앞에서 발견 된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스는 유독 애널리즈의 생일과 ‘발견 된 날’을 좋아했다. 애널리즈의 가족들은 의사가 증언 해준 바에 따라 애널리즈의 6월 2일 생일과 발견 된 날인 6월 4일 모두를 동시에 축하하며 저녁마다 맛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널리즈는 이 날이 다가올 때쯤이면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이 번 해에는 한달 전 알덴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더욱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다. 알덴 부인은 언제나 창문으로 애널리즈를 볼 때면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애널리즈에게 인사 하곤 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애널리즈는 그런 부인에게 자신이 한 번도 다정하게 화답한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 중이었다. 한편 배우가 꿈인 제스는 올 여름 영화 오디션을 보기 위해 근처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며 흥분과 함께 잔뜩 긴장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애널리즈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렌 호수에 이상한 부유물들과 수상한 해조류가 나타나면서 호수가 마치 열병을 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애널리즈는 리조트 일을 돕던 중 소설가인 아빠를 따라 이 곳에 와서 애널리즈 부모님의 오두막들 중 한 곳에서 머물고 있는 자크를 만나고 자크 역시 호수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얼마 후 당국에서 호수에서 조사를 실시하지만 주 정부가 이를 해결할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자 애널리즈는 가장 친한 친구 마야, 자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애널리즈는 호수에 떠다니는 그 수상한 식물 섬이 과도한 영양소를 흡수하며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들과 힘을 합쳐 돈을 모았다. 그러나 제스가 이 돈을 훔쳐 오디션을 떠나는 바람에 애널리즈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애쓰던 중 새로 식물 가게 문을 연 알덴 부인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의 도움 덕분에 호수를 살리기 위한 인공 식물 섬 7개를 만들어 호수에 띄운다. 아이들은 과연 이 호수를 구해낼 수 있을까? 애널리즈는 자신을 향한 렌의 목소리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될까? 교육적이면서도 사랑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미셸 웨버 후르위츠 (Michele Weber Hurwitz)는 4권의 YA 소설을 쓴 작가이며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평생 미 중서부 지역에서 살며 위스콘신의 아름다운 호수에서 보내는 시간을 항상 즐겼다.

제목 : THE KID WHO CAME FROM SPACE

가제 : 태미를 찾아서

저자 : Ross Welford

출판사: HarperCollinsChildren'sBooks

발행일: 2020년 1월 9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문학/SF



\* 베스트셀러인 전작 『TIME TRAVELING WITH A HAMSTER』로 수상한 바 있는 작가가 쓴 YA 공상 과학 소설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Deathless Girls』의 저자,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노섬버랜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열 두 살 소녀 태미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작은 마을이 슬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쌍둥이 에단은 포근한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태미를 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에단은 친구 '이기'와 털복숭이인 신비로운 생명체 '헬라얀', 닭 '수지'와 함께 태미를 찾아 떠난다. 월-E의 유머, 스타워즈의 액션 및 ET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 이야기이다.

태미가 사라진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다.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이 태미의 집 주변 숲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국경까지 샅샅이 뒤지며 태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실종 당시 태미를 본 사람도, 그 이후 태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태미가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자 태미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납치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태미를 납치한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외계 생명체였다. 지구 밖 우주의 또 다른 제국인 ‘안탈란’에서 살고 있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헬라얀은 ‘전시장’ (동물원 같은 곳)에 새로운 생명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곳에 왔다. 헬라얀은 전시장에 붙은 소개문을 찬찬히 읽어 보았다. 그 글에는 이 생명체의 종은 지구 출신의 ‘인간 여성’이며, 나이는 열두 살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과 충혈된 눈을 하고 있는 태미를 자세히 관찰했다. 헬라얀에게 태미의 하얀 피부와 주근깨들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태미는 전시장에서 놓아준 진정제 주사를 맞고도 여전히 깨어 있었는데 너무나 슬픈 얼굴로 헬라얀을 바라보며 계속 ‘태미’라는 말만 하고 있었다. 헬라얀은 ‘태미’가 아마도 그녀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자신의 이름 또한 태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태미 역시 헬라얀의 이름을 미숙하게나마 따라 했다. 헬라얀은 태미를 만나러 온 지 벌써 세 번째였고 좀 더 태미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헬라얀 뒤에는 이 인기 생명체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길게 줄이 서 있었고 헬라얀은 자신이 몸을 옮기는 쪽으로 따라오려는 태미를 뒤로 하고 전시장을 벗어났다. 그러자 전시장 관리인이 나지막이 헬라얀을 불렀고 태미와 행여 소통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그 말은 들은 헬라

안은 잔뜩 경직되고 말았다. 헬라얀이 살고 있는 이 안탈란 제국에서는 절대 정부 인사들의 명령에 반발해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길 헬라얀은 태미의 이름을 되뇌며 태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에판’ 혹은 ‘에단’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헬라얀은 태미를 생각하며 당장이라도 울고 싶었지만 에단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헬라얀은 꼭 저 불쌍한 태미를 지구로 다시 데려다 주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감정을 가진 저주를 받아 태어난 헬라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헬라얀은 태미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 역시 언젠가 다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꿈꾸고 있었다.

한편 에단은 사흘 째 돌아오지 않는 태미를 기다리며 가족들과 집에 있었다. 며칠 째, 경찰들과 기자들이 집을 들락날락하고 있었고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해 눈이 퀭해져 있었고 아빠는 일부러 다 바쁘게 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웃집 소년 이기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묘인 ‘수지’를 데리고 불쑥 찾아와 에단에게 낚시를 하러 함께 호수에 가자는 황당한 말을 꺼냈다. 잠시나마 에단에게 바람을 쐬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기는 에단의 아빠가 운영하는 펴에서 과자를 훔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단의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에단 역시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에단은 자신도 모르게 이기를 따라 나섰다. 구멍 조끼도 없이 카누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까지 나아간 두 사람은 얼마 후 심한 악취와 함께 호수가 출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에단은 길다란 나무통 같은 것에 팔처럼 생긴 물체가 달려 있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그것이 나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상한 물체가 혹시 해초나 부표에 걸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그 물체에 다가갔다. 그러자 그 물체는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켰고 태미가 사라지던 날 밤 에단이 들었던 그 이상한 굉음을 내며 길다란 초록 불빛을 뿜었다. 그 순간 너무 놀란 이기는 물에 빠져버렸다. 이기는 수영을 잘 하는 아이였지만 곧 추위 때문에 기력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 때 이기는 어떤 것이 자신을 수면 위로 받들어 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얼마 후 겨우 에단과 함께 지면에 이르렀다. 에단은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 때 어둠 속에서 코트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긴 했지만 온몸이 털에 덮여 있고 커다란 눈과 코, 고양이 꼬리 같은 것을 가진 외계 생명체 헬라얀이었다. 에단과 이기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버렸지만 헬라얀이 자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단은 순간 태미 역시 안전한 상태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에단과 이기, 수지와 헬라얀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게 되고 헬라얀이 태미를 전시장에서 구출해 지구로 데려올 목적을 가지고 에단을 만나러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에단과 새 친구들은 과연 태미를 구해 낼 수 있게 될까? 기발한 상상력과 감동이 가득한 SF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로스 웰 포드 (Ros Welford)는 전업 작가가 되기전 기자이자 텔레비전 프로듀서였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 보더콜리, 여러 종류의 열대어들과 함께 살고 있다.